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52

데살로니가전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데살로니가전서

1 Thessalonians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5:16-18)

*Πάντοτε χαίρετε, ἀδιαλείπτως προσεύχεσθε,
ἐν παντὶ εὐχαριστεῖτε· τοῦτο γὰρ θέλημα
θεοῦ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εἰς ὑμᾶς.*

데살로니가전서 차례

데살로니가전서 서론	〈17제〉 ...	467
제 1 장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13제〉 ...	474
제 2 장 모범적인 전도자 바울	〈19제〉 ...	479
제 3 장 디모데를 파송하는 바울	〈14제〉 ...	486
제 4 장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릇된 재림관	〈13제〉 ...	492
제 5 장 재림에 관한 바울의 교훈	〈24제〉 ...	498

데살로니가전서 특별 자료 차례

데살로니가전서 서론 〈화보 자료〉 데살로니가의 옛 교회당	473
제 1 장 〈본장의 요절〉	478
제 2 장 〈본장의 요절〉	486
제 3 장 〈화보 자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491
제 4 장 〈연구 자료〉 휴거(擡擧)	497
제 5 장 〈본장의 요절〉	506

데살로니가전서 서론

1. ㉠ 본서신의 발신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은 1:1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다.
- (2) 그러나 튀빙겐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튀빙겐 학파(Tübingen Schule, 1840년대)는 본서신이 로마서나 고린도서와 너무 비슷하다는 이유를 들어 본서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 위조된 작품이라고 주장하였다.
- (3) 이에 반해 본서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2:4, 15; 롬 8:8), ‘주 예수 안에서’ (4:1; 롬 14:14), ‘너희 손으로 일하라’ (4:11; 고전 4:12), ‘저와 함께 살게’ (5:10; 고후 13:4) 라는 귀절이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본서신이 위조된 작품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바울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하여 준다.
- (4)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교부(敎父)인 이레니우스(Irenaeus, A. D. 140-202) 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A. D. 150-215)로부터 그 이후 현대 신학자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학자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본서신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 (5) 위의 사실들을 볼 때 본서신은 바울의 다른 서신에 비해 가장 확실하게 바울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 본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의 수신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행 17:1-9)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다(1:1).
- (2)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 야손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행 17:5),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었다(행 17:4).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야손을 비롯하여 아리스타고(행 27:2; 골4:10), 세군도(행 20:4)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으며, 또 교인들의 신앙 정도도 꽤 훌륭한 편이었다(참조, 1:2-10; 2:13; 3:6-10).

3. ㉠ 바울이 본서신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 ㉠ (1)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을 머물며 전도한 바울은 유대인의 폭동으로 인해 베뢰아로 피신하나 그곳까지 쫓아온 유대인들로 인해 아덴까지 가게 되었다(행 17:10-15).
- (2)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참조, 행 17:10), 실라를 베뢰아에(행 17:14) 각각 남겨 두었고, 그 뒤 베뢰아에서 합류한 실라와 디모데는(행 17:14) 아덴으로 와서(3:1, 2, 참조, 행 17:15)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시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다.
- (3)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직접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원했으나 가지 못하고(2:17, 18) 대신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었다(3:2).
- (4) 얼마 후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행 18:5)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잘 견뎌내며 그 가운데서도 기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이 가진 잘못된 종말관을 시정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게 세우기 원했다.
- (5)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런 기회에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과 정면으로 맞서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말하기

원하였다.

- (6) 위의 사실들을 볼 때 바울은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본서신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 본서신의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라.

- ㉠ (1)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신앙 생활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를 상기시킨다.
- (2) 3장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고수해 나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려 주고 있다.
- (3) 4장과 5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산 자와 죽은 자에게 공평하게 나타날 것이며, 또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
- (4) 위의 사실들을 말한 바울은 끝으로 5장 후반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당부하고 있다.
- (5) 따라서 바울은 본서신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표하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 것을 권고하고 있다.

5. **㉡** 본서신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 ㉡ (1) 본서신에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분으로(1:9)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3:11) 신론(神論)과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1:1) 기독교론(基督論)이 나타나 있다.
- (2) 뿐만 아니라 본서신에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성령(1:5)에 관한 성령론(聖靈論)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구원론(救援論)이 기록되어 있다(5:10).
- (3) 그러나 본서신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상은 종말론(終末論)으로 특별히 본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再臨時)에 나타날 현상이 기록되어 있다.
- (4) 따라서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첫째로,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제일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다(4:16).
 - ② 둘째로, 그 후 살아 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며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살게 된다(4:17).
 - ③ 마지막으로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임한다(5:1-3).
 - ④ 결국 주께서 강림(降臨)하시는 마지막 날에 불신자는 멸망을 당하지만(5:2)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5:10).

6. **㉢** 본서신의 기록 장소와 연대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신은 기록 경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와 실라의 보고를 듣고 기록하였다(참조, ㉠ 3).
- (2)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본서신을 볼 때(참조, 1:1; 행 17:10,14)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관계가 있으며 실라는 1,3차 여행과는 관계가 없는 인물(참조, 행 18:5 이후 실라는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는다)임을 알 수 있다.
- (3) 위의 사실을 볼 때 본서신은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본서신의 기록 연대이다.
- (4)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끌려간 적이 있는 갈리오 법정(행 18:12-17)과 관계 있는 갈리오에 관한 내용이 델피(Delphi) 근처에서 발견된 한 비문에서 소개되었다.
- (5) 이 비문에는 갈리오가 A. D. 51-53년 사이에 1,2년 정도 총독으로 있었음을 말하고 있

는데(행 18:12) 바울은 본서신을 기록하기 전에 고린도에 혼자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한 뒤 본서신을 기록하였다.

- (6) 이것을 볼 때 바울이 고린도 체류 후반기인 A. D. 52-43년경에 고린도에서 본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 데살로니가 시(市)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라.

- ㉠** (1) 이 도시는 살로니가 만(Gulf of Salonica)의 윗부분에 위치한 은천 지대로서 빌립보성(城)을 건설한(B. C. 358) 마케도니아의 왕 빌립 2세의 양자인 카산더(Cassander)에 의해 B. C. 315년에 건축되었다.
- (2) 또한 이 도시의 이름은 카산더의 부인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 (3) 그 후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지배했을 때 이 도시는 로마의 네 행정 구역 중 한 지방의 수도가 되었으나, B. C. 146년에는 마케도니아 전지역의 수도가 되었다.
- (4) 한편 로마의 영웅 시이저가 죽은 뒤 로마가 내란으로 혼란할 때 데살로니가 시는 옥타비아누스(Octavianus, B. C. 27-A. D. 14) 편에 가담한 공로로 B. C. 42년에 자유 도시가 되었다.
- (5) 그 뒤 이 도시는 점점 발전하여 바울 당시에는 '읍장'이라 불리는 행정 장관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관리되었는데(행 17:6), 주민은 대부분 그리이스인과 많은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다.

8. **㉠**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하여 세워지게 되었는가?

- ㉠** (1)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다(행 17:1).
- (2) 이때 바울은 3주일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는데(행 17:2)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른 날 짜는 3주간이 훨씬 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두 번이나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조를 받았으며(빌 4:16),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겼는데(1:19) 이것은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 (3) 또한 바울은 야손의 집을 집회 장소로 사용했는데(행 17:5), 이곳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발전한 것이다.
- (4) 위에서 볼 때 초기의 교회는 대부분이 헌신적인 개인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참조, 행 1:13-15; 16:15, 40; 17:4-9).

9. **㉠** 본서신이 기록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

- ㉠** (1)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의 압력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견디고 있었다.
- (2) 반면에 문제가 된 것은 내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종말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생활이 문란해진 것이었다.
- (3)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여 일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해야 할 육신의 일을 등한시하였다(4:11).
- (4)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염려하고 걱정하여(4:13-18) 신앙 생활에 많은 혼란을 빚고 있었다.
- (5) 결국 이러한 일들은 초보 단계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해야 할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세상 일에 무관심하도록 만들었다.

10. **㉠** 본서신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서신은 바울에 의해 기록된 첫번째 서신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 다음으로 빨리 기록된 성경이다.

- (2) 한편 본서신은 바울의 후기 작품에 비해 교리적인 진술이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바울 서신의 특징인 칭의(稱義)의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 (3) 반면에 본서신에는 연약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부성애적(父性愛的)인 따뜻한 애정이 잘 나타나 있다.
- (4) 뿐만 아니라 본서신에는 유대인들이나 이교도와와의 강한 논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 초기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 (5) 이상을 통해서 볼 때 바울 서신은 항상 시대와 교회적인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 바울의 서신을 분류하고 그 일반적인 특성을 서술하라.

㉡ 바울의 서신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책 명	중심 사상	특 성
최초의서신	데살로니가전·후서	종 말 론	바울은 연약한 이방 교회를 강건케 하기 위하여 본서신들을 기록하였다
4 대서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구 원 론	본서신들은 유대교로 변질되어 가는 기독교인을 상대로 하고 있다
옥 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기 독 론	본서신들은 이단들의 발생으로 인해 잘못된 기독교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목 회 서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교 회 론	본서신들은 바울 생애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교회의 행정 및 건전한 교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12. ㉠ 본서신의 저자인 바울에 대해 간단하게 약술하라.

- ㉡ (1)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히브리인으로서(롬 11:1) 로마의 식민지인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에서 태어나(행 22:3) 어려서부터 이방 문화와 로마의 풍속을 익히면서 로마의 시민으로 성장하였다(행 22:7).
- (2) 그 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 문하(門下)에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쌓았는데 그는 이때에 배운 교훈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핍박할 정도로 율법에 열심(熱心)을 가진 자였다(참조, 행 8:3; 22:3).
- (3) 그러나 다메섹 도상(道上)에서 회심(回心)한 바울은(행 9장)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훈련을 쌓은 뒤(갈 1:17)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전도 여행을 다닐 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일군이 되었다.
- (4) 그리고 세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그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손에 붙들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잡혀오게 되었으나, 그는 오히려 이것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을 만큼 복음에 열심을 가진 자였다.
- (5) 그 뒤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바울은 소아시아와 서바나를 방문하고 나서 다시 체포되어 A. D. 65년경 순교하였는데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애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3. ㉠ 본서신은 어떤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 ㉡ (1) 본서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24년 정도 경과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나 다른 서신보다 훨씬 더 순수한 복음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2) 뿐만 아니라 본서신에는 교회가 조직화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대망하는 순수한 성도들의 소박한 일면이 잘 나타나 있다.

(3) 또한 본서신에는 바울의 다른 서신에 비해 종말 사상이 매우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교회 상황을 말해 주는 것이다.

(4) 다시 말하면 본서신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한 사건들과 그리스도의 재림 시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14. ㉠ 본서신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바울의 행선지를 사도행전 16-18장과 비교하여 차례대로 도표화하라.

㉡ 본서신의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도 시 명	중 요 사 건	동 행 자	특 기 사 항	관 련 귀 절
빌 립 보	루디아 전도, 점치는 귀신들린 여자를 고쳐 주고 감옥에 갇히나 기적적으로 탈출함	실 라 디모데	•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향함	행 16:11-17:1
데살로니가	3주일 동안 회당에서 가르침, 유장 야손의 집에서 유대인을 피해 도망함	실 라 디모데	• 디모데를 남겨 두고 베뢰아로 향함	행 17:1-10
베뢰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피해 아테네로 도망함	실 라	• 실라를 남겨 두고 혼자 아테네로 향함	행 17:10-14
아테네	철학자들과 변론함	없 음	•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에게 오도록 당부함 •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 이들을 데살로니가로 보냄 • 바울 자신은 고린도로 향함	행 17:15-18:1
고린도	아가야 총독 갈리오의 법정 앞에 섬	없 음	•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음 •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함	행 18:1-17

15. ㉠ 천년 왕국에 관한 재학설을 도표화하라.

㉡

학 설	주 장	문 제 점	학 자
천년 환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도께서 7년 대환난 이전에 공중 재림하심 • 그 후 지상에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진 성도들과 혼인 잔치를 하고 7년 환난이 끝난 뒤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짐 • 천년 왕국 기간이 끝난 뒤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나타날 사건들을 일직선적인 시간 선상에 놓고 이해함으로써 두 번의 재림(공중, 지상)과 두 번의 부활(대환난 전 성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시 대환난 때 죽은 순교자의 부활)이라는 복잡한 사건 구조를 가지게 됨 	Bengel Hoffmann Lange Van Andel Trench Newton Godet

		을 하시고 그 이후 영원한 세상이 나타남		
	후 환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도께서 7년 대환난 이후에 단 한번 재림하시며 이때 죽은 성도의 부활 및 휴거가 동시에 발생하고 적그리스도의 형벌에 이어 천 년 왕국이 건설된다는 학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및 휴거와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무천년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재림에 이르는 기간을 상징적인 천 년으로 보는 학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학설은 성경의 역사적 사건 특히 사단의 역사를 하나의 관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하여 생동감이 없으며, 첫째 부활을 성도들의 증생으로 이해함으로 인류가 받을 심판의 이중적 성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함 	Augustine, Buis, A. Kuyper Lenski R. J. Loenertz
후 천년설	초기 후천년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음이 점점 전세계에 퍼져 마지막 천 년 동안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뒤이어서 성도의 부활, 심판, 천당과 지옥이 나타난다는 학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학설에 의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복음이 확장되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천 년 동안은 복음과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성경의 종말판과 모순되며 점점 더 악해지고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현실을 볼 때도 타당성이 없다 	16, 17세기 화란의 개혁파 신학자들, 즉 Coccejus, Altling Witsius Hoornbeek Koelman
	후기 후천년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학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의 나라를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에 따라 자연 법칙의 하나로 봄 	Shirley Jackson Case

16. ㉠ 본서신의 대지를 구분하라.

㉠ (1)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 / 1:1-3:13

- ① 문안 인사 / 1:1
- ②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바울 / 1:2-10
- ③ 바울의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선교 / 2:1-12
 - ㄱ. 바울의 정직함 / 2:1-4
 - ㄴ. 바울의 근면함 / 2:5-9
 - ㄷ. 바울의 흠없는 행위 / 2:10-12

- ④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염려하는 바울/2:13-3:13
 - ㄱ. 그들의 고난에 대하여/2:13-20
 - 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냄/3:1-8
 - ㄷ.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바울/3:9-13
- (2) 실생활에 대한 교훈/4:1-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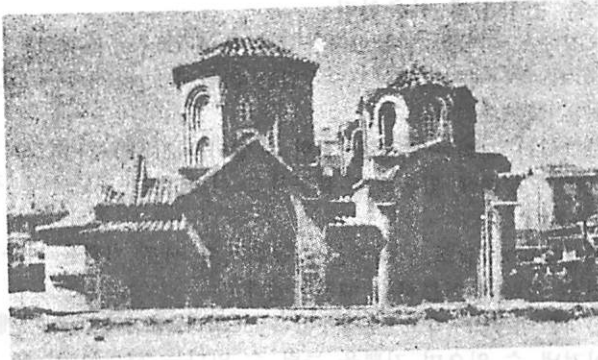
- ① 경건한 생활에 관하여/4:1-12
 - ㄱ. 순결한 생활/4:1-8
 - ㄴ. 형제 사랑/4:9, 10
 - ㄷ. 근면한 생활/4:11, 12
- ②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4:13-18
- ③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훈 / 5:1-11
- ④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5:12-28

17. ㉠ 본서신의 요절은 무엇인가?

- ㉠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5:16-18).

화보자료

데살로니가의 옛 교회당. A. D. 5세기경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교회당은 전형적인 비잔틴(Byzantine) 양식을 띠고 있다.



바울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의 여타 교회(참조, 고전1:10-6:20; 갈3:1)와는 달리 비교적 문제가 없는 교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은 그곳 교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다(참조, 3:2, 3; 4:1-12).

제 1 장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답략구분 1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바울 / 2-5 데살로니가 교회에 증거된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다 / 6-7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 8-10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데살로니가 교회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

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9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라.

- ㉠ (1) 바울은 본장에서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오히려 주위에 있는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표하고 있다.
- (2)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참조, 행 17:2) 때문에 신앙적으로 초보적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고난을 잘 견뎌냄으로써 이웃 교회에 본이 되었다.
- (3)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기쁨을 나누며 주의 복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
- (4) 이것을 볼 때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능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어떤 교회든지 규모나 시설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참조, 행 5:11; 8:26-29).

2. ㉠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한 문안 인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1절)

- ㉠ (1)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였다.
- (2) 여기서 '은혜' (헬, 카리스)는 헬라인의 인사인 <카이레인>에서 유래한 말이며, '평강' (히, 샬롬)은 히브리인의 인사말로써 이 귀절은 당시 여러 문서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인사말이었다.

- (3)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남들이 쓰는 인사말을 흉내내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었던 것이다.
- (4) 한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평강을 누릴 수 없으며 또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평화와 만족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평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참조 요 14:27; 20:19).

3. ㉠ 실루아노는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소개하라(1절).

- ㉠ (1) 실루아노(Silvanus)는 실라(Silas)의 로마식 이름으로 유대인(행 16:20)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행 16:37).
- (2) 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서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에 파송되었으며(행 15:22)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 만큼 신실한 자였다(행 15:32).
- (3) 또한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반자로 나설 만큼 복음에 열심을 가진 자였다(1:1; 행 15:40; 16:25; 17:15; 18:5; 고후 1:19; 살후 2:1).
- (4) 한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후로 실루아노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언급되지 않지만 베드로 서신에서 신실한 형제로 소개되고 있는 실루아노가 그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볼 때(벧전 5:12) 그는 바울과 전도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베드로와 더불어 활동할 정도로 시종 일관(始終一貫) 복음을 위해서 애쓴 자였다.

4. ㉠ 디모데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라(1절).

- ㉠ (1)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로 헬라인인 아버지와 신실한 유대인인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행 16:1; 딤후 1:5).
- (2) 그 후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참조, 행 14:6; 16:1)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그의 동역자로 따라 나설 만큼 열심을 가진 자가 되었다(행 16:3).
- (3) 특히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애썼는데 여기서 어린 교회를 사랑하는 그의 훌륭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3:2).
- (4) 한편 바울은 그를 '형제'라 부르기도 하고(3:2; 고후 1:1; 골 1:1; 몬 1:1)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딤후 1:2; 딤후 1:2) 이것을 볼 때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애정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 (5) 디모데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는 말년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으며(히 13:23) 그 후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 본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1절)

- ㉠ (1) 먼저 '주'라는 말은 여호와를 헬라인의 사교 방식으로 표현한 말로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만을 주(主)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이 말은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꼭 같은 주로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 (2) 다음으로 '예수'라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 개인을 지칭하는 이름으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후대에 <예수아>로 바뀐 헬라식 이름이다.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다.
- (3)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의 직책을 나타내는 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이 명칭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
- (4) 위의 사실들은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행 4:12; 16:31).

6. **㉠** 본절에 나타난 ‘교회’라는 명칭은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 (1절)

- (A) (1)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밖’을 의미하는 전치사 <에크>와 ‘불러내다’라는 동사 <카레오>의 합성어로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온 인격들의 모임을 뜻한다. 처음에는 이 단어가 시민들의 ‘정기적인 집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 (2) 그 후 이 명칭은 단순한 모임이나 무리를 지칭하게 되었고(참조, 행 19:32) 차차 유대교와 결별한 신자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변하게 되었다.
- (3) 한편 초대 교회는 처음에 신실한 성도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했는데(참조, 행 1:13-15; 16:15, 40; 17:4-9; 롬 16:5) 이 가정 교회는 점차 조직을 갖춘 지역 교회(地域教會)로 성장하게 되었다.
- (4) 위의 사실을 볼 때 교회라는 말은 외형적인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은 성도들의 집단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고전 6:15, 19, 20).

7. **㉠**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2, 3절)

- (A) (1)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役事)와 사랑의 수고(受苦)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忍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믿음의 역사’란 신앙을 따라 행동하는 구체적인 행위(Leon Morris)를 말하며 또 ‘사랑의 수고’란 믿음의 행위가 사랑의 표현(참조, 요일 5:2, 3)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代價)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다.
- (3)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을 견디내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참조, 롬 12:12).
- (4) 이것을 볼 때 위의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순히 관념적(觀念的)이고 피상적(皮相的)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신앙 행위를 요구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과 혀로써만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요일 3:18).

8. **㉠** ‘택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 (A) (1) ‘택하심’이라는 말의 헬라어 <에크로게>는 ‘...로부터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하나님의 주권적(主權的)인 선택을 가리킨다(참조, 행 9:15; 롬 9:11; 11:5, 7, 28; 벧후 1:10).
- (2) 한편 구약 시대에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사용되었으나(신 4:37)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참조, 골 3:12).
- (3)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로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이지 인간의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기도 한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택함을 받은 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항상 주께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빌 2:12).

9. **㉠**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는가? (4, 5절)

- Ⓐ (1) 그것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이 말로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른〔至〕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 (2)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는 말재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뜻이다.
- (3) 그런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움직이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役事)를 가리킨다.
- (4)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자는 큰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말재주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참조, 고전 2:4).

10. ㉠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환난(患難)에 대처하였는가? (6절)

- Ⓐ (1) 그들은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환난을 이겨냈다.
- (2) 한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쫓는 데 불만을 느낀 일단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시(市)에서 불량배를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켰고 이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베뢰아로 가게 되었다(행 17:1-10).
- (3)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다(2:14).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보았고 더 나아가 그 기쁨으로 환난을 이겨냈다.
-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성령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요 17:22, 33).

11. ㉠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점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는가? (6, 7절)

- Ⓐ (1) 그들은 바울 일행과 주(主)를 본받음으로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 (2)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닌 헬라어 <미메오마이>는(2:14) 영어의 ‘모방하다’ (mimic)는 단어와 같은 음가(音價)를 가진 것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순히 말로써만 사도 바울을 모방하지 않고 행실로써 바울을 본받았던 것이다.
- (3)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을 불렀던 것과 같이(행 16:19-25)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그 환난을 이겨냈던 것이다(6절).
- (4)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로써만 바울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써 사도 바울을 본받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 (5)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권유하였다(고전 4:16; 11:1).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되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행위를 몸소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약 1:22).

12. ㉠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들은 뒤 어떻게 처신하였는가? (9, 10절)

- Ⓐ (1)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렸다.
- (2) 여기서 ‘우상을 버리는 것’은 복음을 들은 이교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해야 될

첫번째 일로서 과거의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참조, 창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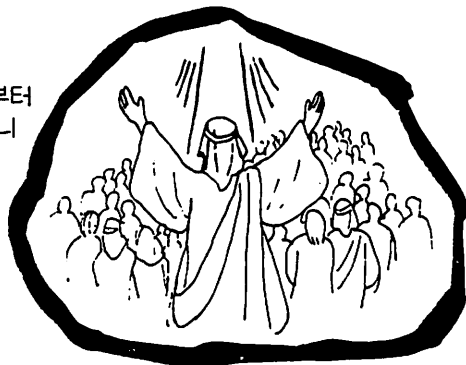
- (3)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는 단순히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는 단계를 넘어서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다.
- (4)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은 자는 신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했다.
- (5) 이러한 사실들은 신앙이 전인격적인 회심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재림 신앙에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 (6) 그러므로 회심하여 신앙의 초보 단계에 들어선 성도들은 하루빨리 과거의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 올바른 신앙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엡 4:17-24).

13. **㉠**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종말에 대한 자세는 어떠했는가? (10절)

- ㉠** (1)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를 기다렸다.
- (2) 여기서 '기다림' (헬, 아나메네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본질에만 나타나는 단어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것을 가리킨다.
- (3)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이 '기다림'이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Findlay).
- (4) 이러한 사실들은 성도들의 종말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리켜 준다.
- (5)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고대했던 것과 같이 성도들도 이와 같은 자세로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막연히 수동적인 자세로 재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굳게 하며 기쁨으로 환난을 견뎌 내는 적극적인 자세로 주의 날을 예비하여야 한다(참조, 5:23; 딤후전 6:14; 요일 2:28).

본장의 요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10절).



제 2 장 모범적인 전도자 바울

단락구분 1-2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 3-4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 5-12 겸손하고 유순(柔順)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 13-16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 17-20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 위해 애쓰는 바울

1 형제들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3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꾀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4 오직 하나님의 율계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5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6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7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도가 자기 자녀를 기쁨과 같이 하였으니

8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 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9 형제들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10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중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1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14 형제들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15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7 형제들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일일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8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번 너희에게 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라

20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앞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루 문안 인사를 한 바울은 이제 본장에서 본론으로 들어가 그 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쏟았던 자신의 열심을 회상하고 있다.
- (2)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선교 초기에 당했던 박해를 회고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 (3)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과 떨어져 있는 지금도 그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

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다.

(4) 이와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염려하며 끊임없이 그들에게 애정을 쏟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부성애(父性愛)적인 사랑을 엿볼 수 있다(참조, 11절; 고전 4:14; 고후 6:13; 요삼 1:4).

(5) 이와 마찬가지로 전도자들도 단회적(單回的)인 전도에만 만족하지 말고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2. ㉠ ‘헛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1)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공허(empty) 하거나 무익(futile) 하지 않다는 뜻이다.

(2)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 많은 결신자를 얻었다는 뜻이다.

(3) 이와 같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한 결과 많은 새 신자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말로써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다(1:5).

(4)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말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役事)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5)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의 말재간에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세로 복음 증거에 힘써야 한다(고전 1:17; 2:1, 4, 13).

3. ㉡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凌辱)은 무엇인가? (2절)

㉡ (1) 그들이 빌립보에서 귀신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 주었는데 그 결과 수입원(收入原)이 끊어진 점치는 여종의 주인은 이상한 풍속(風俗)을 전한다는 구실로 바울 일행을 관원들에게 고발하였다.

(2) 이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긴 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행 16:19-24).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옥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간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다(행 16:25-34).

(4)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5) 여기서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말은 원어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뜻이다(새 번역 성경).

(6) 즉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다.

(7)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고 말 것이다.

(8)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환난에 대처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참조, 롬 6:13; 고후 8:5).

4. ㉢ 3절에 사용된 용어들을 설명하라.

㉢ (1)

용어	원어	원래의 의미	본절에서 사용된 의미
권면	<파라클레시스>	겉으로 부르다	슬픔에 싸인 사람을 위로하다. 복음을 가르치다
간사 (奸詐)	<프라네>	오류(RSV)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을 가르치다

부 정 (不淨)	〈아카사르시아〉	정결하지 못한 것	불순한 동기로 가르치다
계 계 (詭計)	〈도 로〉	속 임 수	감언 이설로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하다

- (2) 위의 사실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어떤 불순한 동기에서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 (3) 이것은 복음에 대한 전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말이다. 즉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되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4)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복음 증거가 자신의 생계 수단 내지는 영업의 한 방편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 (5) 이와 같은 일련의 추세는 복음이 물질 만능주의(物質萬能主義)에 편승(便乘)하여 상업성을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심(私心)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증거 그 자체에만 열심을 가져야 한다 (참조, 행 20:33-35; 고전 4:12; 고후 2:17; 7:2; 11:9; 12:17).

5. ㉠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 (2)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아(to be tested) 지금은 옳게 인정받고 있는 상태(stand approved)에 있다는 뜻이다.
- (3) 이것은 바울 일행이 자의적인 행동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음을 말한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복음 사역의 중차대(重且大)한 사명을 맡기신다 (행 9:15; 13:1-4; 15:40; 16:1, 2; 딤펴전 1:2, 12, 18; 6:12, 20; 딤펴후 1:5, 13, 14).

㉡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4절)

- ㉡ (1)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鑑察)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다.
- (2) 이와 같이 바울은 인기와 명예에 영합(迎合) 하여 사람을 의식하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였다.
- (3)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당부한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마 10:7, 27; 막 16:15; 눅 9:2, 60; 행 5:20; 딤펴후 4:2).
- (4)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보다는 자신의 인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상한 말투와 몸짓 심지어는 욕설까지 하면서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 (5)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성도들 특히 대중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맡은 자들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갈 1:10; 엡 6:6).

7. ㉢ 바울은 자신이 전파한 복음의 순수성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였는가? (5, 6절)

- ㉢ (1) 그는 아무 때에도 아첨(阿諛)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에게도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아첨의 말’ 이란 신약에서 본절에만 나타나는 표현으로서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까지를 미리 계산에 넣고 하는 말을 가리킨다.

- (3) 또한 ‘탐심의 탈’이란 마음속에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복음이라는 미명(美名)으로 그 욕심을 가리는 것을 말한다.
- (4) 이러한 두 가지의 태도는 결국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며 진실한 종과 거짓된 종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Calvin).
- (5)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되는 다른 위선자를 가리켜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말씀하셨다(마 7:15).
- (6)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복음의 순수성을 흐려 놓는 자를 가리킨다.
- (7) 그러므로 혹시라도 탐심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은 부패한 속 사람을 내어 버리고 깨끗하고 빈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참조, 삼상 12:3; 행 20:33; 고후 7:2).

8. **㉠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7절)**

- ㉠** (1) 그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살폈다.
- (2) 이 말은 유모가 위탁받은 남의 아이를 돌보는 심정을 가리킨다기 보다는 어머니가 자신의 친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온갖 관심과 심혈을 다 기울이는 것을 가리킨다.
- (3)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도적인 권위로써 데살로니가 교인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이 유순(柔順)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폈다.
- (4) 이처럼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모성애(母性愛)적인 관심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갈 4:19)는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 (5)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지배자의 자세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성도들 위에 군림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녀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보살펴야 한다(참조, 11절; 고전 4:14; 고후 6:13; 딤후 1:2; 딤후 1:4; 몬 1:10; 요삼 1:4).

9. **㉠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는가? (8절)**

- ㉠** (1)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였다.
- (2) 이것은 복음 증거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강력한 실천과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 (3)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는 자기 희생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 (4)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마 16:24)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온전한 자기 희생을 의미한다.
- (5) 그러므로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나 주의 종이 되기 위해 신앙 훈련을 쌓고 있는 자들은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신앙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마 10:38, 39; 막 8:34; 눅 9:23; 14:27).

10. **㉠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누(粟)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어떤 식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는가? (9절)**

- ㉠** (1) 그들은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 (2) 한편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급 자족(自給自足)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행 18:3).
- (3) 이와 같이 전도자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고전 9:6, 12) 자급 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연약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 (4) 그런데 오늘날 소위 목회자들 중에는 복음을 빙자하여 개인의 부(富)를 축적하는 자들이 간혹 있다.

- (5) 극단적인 예로 일부 부흥사들 중에는 부흥회 기간 중에 걷힌 헌금을 3·7제 내지는 4·6제로 분배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자들도 있다.
- (6) 이런 자들은 도저히 전도자로서의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럽히고 연약한 하나님의 교회를 실족케 하는 자들이다.
- (7)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연약한 교회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복음 증거에만 열심을 내야 한다(참조, 행 20:34; 고전 4:12; 9:15; 고후 11:7; 12:13; 살후 3:8).

11. **㉠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록하고 옳고 흠 없게 행한 것을 증거하는 자는 누구인가? (10절)**

- ㉠** (1)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하나님이다.
- (2) 여기서 ‘기록하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킨다.
- (3) 뿐만 아니라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 (4) 또한 ‘흠 없게 행동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도나 사람들 앞에서 모두 인정받는 행동을 가리킨다.
- (5)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도 정당하게 행동했음을 말해 준다.
- (6)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참조, 1:5; 행 23:1; 24:16; 고후 6:3; 딤후 4:15).

12. **㉠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는가? (11, 12절)**

- ㉠** (1) 그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勸勉)하고 위로하며 경계(警戒)하였다.
- (2) 여기서 ‘권면’이란 무지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고, ‘위로’란 연약한 자녀를 부드러운 말로 격려하는 것이며, ‘경계’란 그릇된 자녀를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 (3) 이와 같이 7절에서 모성애적인 태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한 바울이 이제 부성애적인 준엄한 태도로 그들을 권고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4) 이처럼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부드럽게 다루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자세로 엄격하게 교훈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때때로 무지하여 그릇된 길로 나갈 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책망할 줄도 알아야 한다(참조, 딤후 1:10; 딤후 4:2; 딤후 1:9; 2:1).

13. **㉠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 12절)**

- ㉠** (1)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여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2) 여기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신분에 맞게 걷는다는 뜻으로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 (3)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말은 종말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삶의 영역을 지칭하기도 한다.
- (4)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간 것이나 다를 바 없다.
 (5) 그러므로 이미 천국 시민이 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아 천국 시민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엡 4:1; 빌 1:27; 골 1:10; 2:6).

14. **㉠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한 내용은 무엇인가? (13절)**

- ㉠** (1)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에 대해 감사했다.
- (2) 여기서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뜻이다.
- (3)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 계획을 바울에게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타내셨다(참조, 행 8:4).
- (4) 이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몇몇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책임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마 28:19, 20; 막 16:15; 행 1:8; 13:3; 16:9; 26:17, 18; 롬 10:15).

15. **㉠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본받았는가? (14절)**

- ㉠** (1) 그들은 유대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과 같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 (2)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개종함으로써 데살로니가에 만연해 있던 불의한 풍습들을 버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것이다(딤후 3:12).
- (4)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신앙의 순수성을 지속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
- (5)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신다(참조, 롬 8:26; 히 2:18).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참조, 롬 8:18; 벰전 4:13; 5:1; 요일 3:2).

16. **㉠ 유대인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 (15, 16절)**

- ㉠** (1) 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울 일행을 쫓아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바울 일행이 이방인(異邦人)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 (2) 한편 유대인들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고 나아가서 복음 증거자들을 훼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였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불신자들보다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훼방하는 자들이 있다.
- (4) 그러나 이런 자들은 불신자보다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마 11:22; 요 9:41; 15:22; 롬 2:9).

17. **㉠ 자기 죄(罪)를 항상 채우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16절)**

- ㉠** (1)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 (2) 여기서 '죄를 항상 채운다'는 말은 어쩌다 실수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가 극도에 달한 것을 가리킨다.
- (3) 이처럼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

게 되는 것이다.

- (4) 그러나 이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임할 종말적인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들을 심판하기 보다는 이들이 회개하고 당신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참조, 딤후전 2:4; 벰전 3:9).
- (5) 그러므로 죄의 길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루빨리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참조, 욥 11:14; 잠 28:13; 사 55:7; 엡 4:22; 골 2:11; 히 12:1; 벰전 2:11).

18. **㉠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더 방문하기 원했으나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17, 18절)**

- ㉠** (1) 그것은 사단이 바울 일행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 (2) 한편 바울 일행을 가로막은 사단의 방해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바울의 몸에 있던 가시(고후 12:7)였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훼방이었다고(행 17:5-9) 주장하기도 한다.
- (3)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을 지지할 만한 근거는 없으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모든 요소는 다 사단의 훼방이라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사단은 인간 제반사(人間諸般事)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훼방하지만(참조, 욥 1:6-12; 숙 3:1)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순간에 사단을 결박하고 당신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다(계 20장).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참조, 막 1:14; 눅 4:43; 8:1; 9:2; 16:16; 행 1:3; 8:12; 20:25; 28:23).

19. **㉠ 왜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방문하려고 하였는가? (18, 19절)**

- ㉠** (1)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분 앞에서 바울의 소망과 기쁨과 사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떳떳하게 서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말이다.
- (3)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복음 사역의 결과인 데살로니가 교인의 신앙 상태를 자랑한다는 뜻이다.
- (4) 결국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생각해서 소망이나 기쁨을 가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신앙 때문에(1:6) 기쁨을 누렸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한다(참조, 롬 3:27; 4:2; 고전 1:31; 고후 1:14; 빌 2:16).

본장의 요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러 함이니라’ (12절).

제 3 장 디모데를 파송하는 바울

단락구분 1-5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다 / 6-10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다 / 11-13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구

1 이리므로 우리가 참다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2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군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 이리므로 나도 참다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 일러니

6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 이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9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10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1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12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 ㉠ 본장의 중심 사건은 무엇인가?

㉠ (1)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려하여 방문하기를 소원했으나 사단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울은(참조, 2장) 자신을 대신해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한다.

(2) 그 후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박해를 기쁨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안심하며 본장의 내용을 기술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며 위로한다.

(3) 이처럼 연약한 교회를 노심 초사(勞心焦思) 염려하는 바울의 성품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과 족히 비교될 수 있다(참조, 눅15:11-32).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일상 생활 속에서 환난과 박해 또는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을 염려하시며 또 굳게 하기를 원하신다(참조, 신33:29; 대하25:8; 시28:7; 사41:10; 50:9).

(5)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신다(롬8:26, 27).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연약한 우리를 염려하시며 성령을 통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게 하여야 한다(참조, 대하20:20; 시40:2; 112:8; 잠12:19; 사54:14; 롬16:25; 골2:7; 살후2:17; 히13:9).

2. **㉠ 디모테가 데살로니가로 파송될 당시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1, 2절)**

- ㉠** (1)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베뢰아로 간 바울과 실라는 디모테를 데살로니가에 남겨 두었다(참조, 행 17:10).
- (2) 그 후 바울은 아덴으로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테를 아덴으로 오도록 당부하며 디모테는 베뢰아에서 실라와 합류하여(행 17:14) 아덴에 있던 바울을 만난다.
- (3) 이때 디모테와 실라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하여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준다.
- (4)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원했으나 가지 못하고(2:17, 18) 대신 디모테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였는데(2절) 이때 실라는 빌립보 지역으로 파송된 것 같다(Thiessen).
- (5) 그 후 고린도에 온 실라와 디모테를 통해 마케도냐 여러 교회가 박해를 잘 견뎌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행 18:5) 본서신을 써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었다(참조, 서론 ㉢).

3. **㉠ 디모테를 파송할 당시 바울은 아덴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1, 2절)**

- ㉠** (1) 바울은 혼자서 아덴에 머물면서 복음 사역에 힘썼다.
- (2) 한편 본절에서 '우리'가 아덴에 머물렀다고 하는 말은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 (3) 그러나 바울이 2:18과 5절에서 '나'라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1절에서 사용된 '우리만'을 가리키는 헬라이어 <모노이>는 '혼자'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테를 파송할 당시에 바울은 아덴에 혼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라는 복수 형태를 사용한 이유는 비록 동역자들이 자기와 떨어져 있지만 이 동역자들은 항상 자신과 더불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는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5)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이방 철학과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아덴에서도(행 17:16-34)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 (6) 그러므로 외지(外地)나 이국(異國)에서 홀로 복음 증거를 위해 고군 분투(孤軍奮鬪)하는 자들은 비록 주변에서 자기를 도울 만한 동역자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동역자라는 의식을 갖고서 낙심치 말고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참조, 롬 16:3).

4. **㉠ 바울이 디모테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 (2)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를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격려한다는 뜻이다.
- (3) 한편 예수께서도 베드로에게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도자의 사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 (4) 이와 같이 전도자는 항상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 (5) 그러나 오늘날 극소수의 전도자들 중에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명예와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다.
- (6) 이러한 행위는 전도자의 사명을 망각하여 자신 뿐 아니라 연약한 심령까지 죽이는 율지 못한 처사이다.
- (7) 그러므로 전도자는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양 떼를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보살피며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며 위로해

야 한다(행 11:23; 14:22; 15:32, 41; 16:5).

5. **㉠**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당하도록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2) 다시 말하면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받도록 작정되었다는 뜻이다.
 (3)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싫어하는 악한 무리들에게 항상 도전을 받기 때문이다(참조, 마 5:10; 10:17; 16:24; 행 14:22; 빌 1:29; 벧전 2:21; 4:12; 딤후 3:12).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복음에 대항하는 사단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이다(참조, 요 12:31; 14:30; 16:11; 고후 4:4; 엡 2:2; 6:12).
 (4) 한편 초대 교회 당시에 이 환난은 성도의 육체에 외적(外的)으로 직접적인 고통을 주었으나 복음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외적인 환난도 있겠지만 더욱 뚜렷하게는 내적으로 정신 세계에 심각한 어려움이 닥쳐오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이 환난을 직접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5) 그러나 환난은 그 형태와 방법이 바뀌었을 뿐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정신 사조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성도들을 괴롭히는 새로운 형태의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 항상 깨어 근신하여야 한다(참조, 신 4:9; 시 39:1; 마 26:41; 행 20:31; 고전 10:12; 16:13; 벧전 5:8; 계 3:2).

6. **㉠**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사실을 미리 예견해 주었는가? (4절)

- ㉠** (1) 그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장차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하였다(살후 1:4, 6).
 (2) 이외에도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행 14:22).
 (3) 이것은 성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실례가 된다.
 (4) 우리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이겨낸 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천성(天城)을 향해 가는 성도의 고난받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7. **㉠** '시험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5절)

- ㉠** (1) 이 일은 일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이나 데살로니가에 사는 불신자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사단을 가리킨다(마 4:3).
 (2) 사단은 바알세불(마 12:27; 막 3:22), 귀신의 왕(막 3:22), 살인한 자(요 8:44), 거짓말장이(요 8:44), 이 세상 임금(요 14:30), 벨리알(고후 6:15), 뱀(고후 11:3), 악한 자(엡 6:16), 대적자(벧전 5:8), 찢는 자(계 12:9), 참소하던 자(계 12:10) 등의 별명을 가진다.
 (3) 그런데 이 사단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연약한 믿음을 시험하여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헛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4) 이와 같이 사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전도자의 수고를 헛되게 하려 한다.
 (5) 그러므로 전도자는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 애쓰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고(참조, 엡 4:26, 27; 6:11; 약 4:7; 벧전 5:8, 9) 성도들을 계속해서 복음 가운데 양육시켜야 한다(참조, 롬 3:15; 요 21:17; 딤후 4:13; 딤후 4:2; 딤후 1:9; 2:15; 히 3:13; 10:25).

8. **㉠**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무엇인가? (6절)

- ㉠** (1) 그것은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이며 둘째로, 그들이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 (2)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상태와 사랑의 교제에 관한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유양겔리사메누>라고 표현하고 있다.
- (3) 그런데 이 동사는 원래 '복음을 전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바울은 이 동사를 주로 복음 증거와 관련해서 사용했으나(2:4; 갈1:7, 8; 2:7; 골1:25; 딤펴전1:11; 딤펴1:3) 여기서는 성도들간에 나누는 사랑의 교제와 신앙 생활에 관해서 사용하고 있다.
- (4)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성도들의 신앙이나 사랑의 교제를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와 동일한 비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 (5) 그러나 많은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죽임과 부활, 승천, 재림에 관한 내용만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간의 교제나 사랑의 실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 (6) 이것은 성도들이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실상은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런 자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형식적인 신자가 되지 말고 그 복음을 형제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실천함으로써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참조, 마5:16; 눅10:37; 약2:14-26).

9. ㉠ 바울 일행이 궁핍(窮乏)과 환난 중에도 위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 (1)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 (2) 사실 바울 일행은 전도 여행 도중에 물질적으로 많은 곤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전7:26; 고후6:4, 5; 11:23-27; 12:10).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전한 복음을 접한 자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음으로써 모든 환난과 궁핍을 이겨낼 수 있었다.
- (4)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복음 전파에 전력을 기울인 나머지 많은 박해를 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동안 당했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기뻐하였다.
- (5) 이와 같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철저히 자기를 희생시키는 바울에게서 최인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갈2:20).

10. ㉠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인가? (8, 9절)

- ㉠ (1)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섰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주 안에서 굳게 서다'라는 말은 믿음이 견고하여 유혹이나 환난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 (3)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는 살리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볼 때 바울은 박해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1. ㉠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주야로 간구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10절)

- ㉠ (1)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들의 얼굴을 보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 (2) 한편 사도 바울은 본서신의 여러 곳(6-8절; 1:3, 8; 2:13)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였으나 여기서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약간의 모순된 표현을 하고 있다.
- (3)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부족했다는 뜻이지(Alford, Findlay) 그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 (4)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박해도 기쁨으로 이겨낼 정도로 신앙에 열정을 가졌으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여 일상 생활을 게을리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또 도덕적으로도 무질서하였다(4:2-6).
- (5)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방문하여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치기 원하였다.
- (6) 이것은 신앙에 대한 열심과 지식을 겸비한 성도만이 올바르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 (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른 신앙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인식된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딤후3:16, 17).

12. **㉠**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렸는가? (11절)

- ㉠** (1) 그들은 자신의 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로 직행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 (2) 여기서 ‘직행하게 해 달라’는 말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방문하는 데 어떤 장애 요인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달라는 뜻이다.
- (3) 이러한 바울의 간구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드렸던 기도, 즉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길로 인도 하사’ (창24:48) 라는 말과 일치한다.
- (4) 즉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방문할 수 있는 선한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 (5)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던 신앙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6) 그러므로 오늘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시5:8; 25:5; 27:11; 143:10; 행1:24).

13. **㉠**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는가? (12절)

- ㉠** (1)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피차간(彼此間)에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사랑을 베풀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 (2)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만 모든 사람(불신자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 (3)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간의 교제를 중요시하는 자들 중에는 불신자와 관계를 갖는 것을 악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불신자들을 백안시(白眼視)하며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 (4) 이러한 행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위배되며(마5:43-48),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거스리는 것이다(갈6:10).
- (5)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을 신앙인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여야 한다(마5:16; 골1:10; 딤후6:18; 딤후2:7, 14; 3:8; 히10:24; 약2:17, 18; 벧전2:12; 요일3:18).

14. **㉠**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 (1)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이 굳게 되고 또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 (2) 여기서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굳건해진다는 뜻이며 '거룩함에 흠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다.
- (3)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굳건하게 신앙 생활하며 성결한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성도간이나 또 불신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였다.
- (4)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 성결을 추구하는 성도의 지향할 바라는 것을 말해 준다.
- (5)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주 앞에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항상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참조, 롬13:10).

화보자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바티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성화는 11세기경의 것이다. 제일 윗단은 스타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아랫단 정중앙은 12사도와 천사에 둘러싸여 있는 심판주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아랫단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며, 제일 아랫단은 심판받을 악인들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행위에 따라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된다. 즉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나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마25:31-46).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날까지 신앙으로 인내하여야 한다. 이에 바울은 본장에서 그리스도 강림의 때까지 성도들이 스스로를 흠 없이 보존하기를 촉구하고 있다(13절).

제 4 장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릇된 재림관

단락구분 1-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 3-8 부도덕한 삶에서 떠나라 / 9-10 형제를 사랑하라 / 11-12 부지런히 일하라 / 13-18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1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2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5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6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7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8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9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이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11 또 너희에게 명한 것같이 중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 이는 의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3 형제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1. ◎ 본장에 언급된 중심 교리는 무엇인가?

- (A) (1) 본서신의 전반부 세 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사도 바울은 후반부의 첫 장인 본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올바른 재림관을 가르치고 있다.
- (2) 한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었다.
- (3) 즉 그들은 종말로 곧 임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일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렸으며 또 재림을 대망하던 동료 성도들이 재림을 보지 못한 채 죽게 되자 재림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 (4)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가 산 자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산 자가 죽은 자보다 결단코 나올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중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여 불성실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라면 적어도 더욱 긴장하고 그분 앞에 드러날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아야 할 것이다.
- (6)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은,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전 9:10; 엡 4:28; 살후 3:12).

2. **㉠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른 재림관을 가르쳐 주기에 앞서 제일 먼저 무슨 권면을 하였는가? (1절)**

- ㉠** (1)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대로 행하기에 더욱 힘쓰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듣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하였다.
- (3) 이것은 성도들이 복음이나 바른 교리를 보고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그것들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복음이나 교리가 고도로 지식화되고 관념화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나 기타 성경 공부 단체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한다(롬 6:4; 8:1; 고후 5:7; 갈 5:6; 엡 4:1; 5:2, 15; 골 2:6; 요일 1:7; 2:6).

3. **㉠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준 교훈은 누구를 통하여 받은 것인가? (2절)**

- ㉠** (1)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 (2)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다는 말로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은 받지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줄곧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배웠다(참조, 요 14:26).
- (3) 바울은 이렇게 해서 배운 교훈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신다.
- (5)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참목회자들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느 9:20; 눅 12:12; 요 14:26; 고전 2:13; 요일 2:27).

4. **㉠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소개하였는가? (3-6절)**

- ㉠** (1)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 (2) 한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다(레 19:2; 대상 16:29).
- (3)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의 표본을 '음란을 버리고 한 아내에게 만족하며 색욕을 좇지 않고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4) 이처럼 바울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많은 조건들 가운데서도 위의 몇 가지 사실들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개한 이유는 그들 사이에 헬라인들의 공통적인 성적 부도덕과 향락적인 사고 방식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 (5) 이와 같이 성도들 중에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옳지 못한 습관에 젖어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른 채 지내는 수가 허다하다.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부정했던 생활 태도를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눅 1:74, 75; 고후 7:1; 엡 4:24; 벰전 1:16; 벰후 3:11).

5. **㉠**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방인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4, 5절)

- ㉠** (1) 그는 색욕(色慾)을 좇는 것이 이방인의 특성이라고 하였다.
 (2) 여기서 '색욕'이라는 말의 헬라어 <에피두미아>는 원래 '불타오르는 정욕'을 가리키는 말로서 바울은 이러한 욕정을 피하고 순결을 지켜 한 아내에게만 만족할 것을 권고하였다.
 (3)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단순히 음란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하였다.
 (4) 이것은 건전한 부부 관계가 신자의 가정 생활 뿐 아니라 신앙 생활의 성결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 준다.
 (5) 그러므로 성 윤리(性倫理)가 극도로 문란하여 퇴폐 풍조가 만연한 이때에 성도들은 올바른 결혼관을 확립하여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마 5:32; 행 15:29; 고전 5:1; 6:18; 7:2; 10:8; 엡 5:3; 골 3:5).

6. **㉠** 형제를 해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6절)

- ㉠** (1) 주께서 반드시 신원(伸冤)하신다.
 (2) 여기서 '형제를 해한다'는 말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넘어서 남의 아내와 관계를 갖는다는 말로서 이런 자는 그 형제를 해롭게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 형제의 원수를 갚아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수자(報讐者)이시기 때문이다(The Lord is the avenger, KJV).
 (4) 오늘날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또 욕정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함으로써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경우가 많다.
 (5) 이런 자들은 당장에는 법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레 25:14; 신 32:35; 시 94:1; 롬 1:18; 12:19; 히 13:4).

7. **㉠** '저버리는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7, 8절)

- ㉠** (1) '저버리는 자'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버리는 자를 말한다.
 (2) 이러한 자는 위의 사실을 전한 사도 바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이다.
 (3) 왜냐하면 바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요 14:16, 17; 고전 6:19).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 뿐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가르쳐 주신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엡 4:1; 살후 1:11; 벧후 1:10).

8. **㉠**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식으로 형제 사랑의 본을 보였는가? (9, 10절)

- ㉠** (1) 그들은 온 마케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형제 사랑의 모범을 보였다.
 (2) 여기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도들간의 사랑의 교제를 가리키는 말로서 형제 사랑은 기독교의 윤리를 대표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3) 그래서 예수께서도 형제(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할 만큼 형제간의 사랑을 중요시했다(요 15:13; 요일 3:16).
 (4)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며(롬 13:10), 당신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

이다(요이 1:6).

- (5)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은 이웃과 그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주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3:12; 마 22:39; 요 13:35; 15:12; 히 13:1; 약 2:8; 벧전 1:22; 요일 4:7).

9. **㉠**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용(從容)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1, 12절)

- ㉠** (1)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외인을 대하여 단정(端正)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 (2) 한편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에는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지나친 열성분자들이 있다.
- (3) 그래서 이들은 온갖 일에 다 끼여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지만 오히려 자기의 일에는 무관심하다.
- (4) 또한 교회 안에서는 항상 남의 도움으로 생활하려고만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여 자기 생활을 꾸려 나가려는 의지와 성실성이 부족한 자들이 종종 있다. 그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성령의 가르침을 오해한 자들이다.
- (5) 결국 이러한 자들은 믿는 성도들 사이에도 덕이 되지 않으며 불신자들에게도 불성실하게 보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근면한 자세로 신앙 생활을 병자하여 게으름을 변명하지 말고 항상 자신의 생활에 충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행 18:3; 엡 4:28; 살후 3:11, 12; 벧전 4:15).

10. **㉠**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슨 일로 인해 슬퍼하였는가? (13절)

- ㉠** (1) 그들은 '자는 자들'로 인하여 슬퍼하였다.
- (2)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성경은 신·구약 여러 곳에서 죽은 자를 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창 47:30; 신 31:16; 왕상 2:10; 단 12:2; 마 27:52; 요 11:11-13; 행 7:60; 고전 7:39; 15:6, 18).
- (3)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은 자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이유는 그들의 동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도중에 하나씩 둘씩 죽어 갔기 때문이다.
- (4)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은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 (5)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죽은 성도들이 산 성도들보다 먼저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였다(16, 17절; 고전 15:52).

11. **㉠**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떻게 되는가? (14-17절)

- ㉠** (1)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 (2) 한편 전천년주의자(Premillennialist,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건설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주장한다(Irenaeus, Tertullian, Papias, 16절).
- (3)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나 살아 있는 성도들이 모두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성도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 (4)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시 어린양의 혼인 잔치와 성도들의 부활 및 휴거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시간적으로 일직선상에 놓고 전후 관계를 따질 수 없다.
- (5) 오히려 이는 우주적인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성도의 부활과 휴거, 어린양

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 후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천 년 동안 왕 노릇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천천년설’이다.

- (6) 그러나 죽은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천년 왕국 기간이 지난 후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흰 보좌 심판)을 하실 때에 살아나서 정죄를 받게 되는데 이를 둘째 사망(불신자의 소생은 부활이란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음)이라 한다(계 20:6, 11-15).
- (7) 그런데 이 전천년주의자들 중에서 특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두 번 재림(공중, 지상)과 두 가지 부활(천년 왕국 이전의 성도의 부활, 천년 왕국 이후 최후의 심판 때 불신자의 소생)이라는 시간적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자(Amillennialist,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인 천 년으로 보는 학자)들에 의해 배척되고 있다.
- (8) 즉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지상 재림하신 뒤 신자와 불신자들이 단번에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 (9) 반면에 후천년주의자(Postmillennialist, 천년 왕국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가서 천 년 동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며 또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사회가 복음화되어 점진적으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 (10) 이처럼 종말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주장들이 있긴 하지만 어느 학설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천천년설’의 입장을 채택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 (11)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께서 분명히 재림하시고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다(빌 4:5; 히 10:37; 약 5:8; 계 3:11; 22:7, 20).

12. ◻ 바울은 주의 재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6절)

- Ⓐ (1) 주께서 호령(號令)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신다(현대인의 성경)고 했다.
- (2) 여기서 ‘주의 호령’은 15절과 연관시켜 볼 때 자는 자(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3) 또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역시 죽은 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신호로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고전 15:52).
- (4) 이처럼 주께서는 나팔을 부는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사망에 흠여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모으신다.
- (5)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가 없다.
- (6) 그러므로 재림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항상 깨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 한다(참조, 5:5, 6; 마 25:13; 막 13:33; 눅 12:37; 계 3:11; 16:15).

13. ◻ 살아 있는 성도들은 어떤 방법으로 주를 영접하는가? (16, 17절)

- Ⓐ (1) 살아 있는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 뒤 그들과 더불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 (2) 그 후에 그리스도는 신랑의 자격으로 신부인 성도들을 맞이하여 어린양의 혼인 잔치(계 19:7)를 배설한다.
- (3) 그러나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할 신부는 성도들의 행실(行實)을 상징하는 세마포(細麻布)로 단장하여야 한다.
- (4) 뿐만 아니라 예복으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혼인 예식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하는 것

이다(마 22:11-13).

- (5) 그러므로 신부가 신앙을 위하여 정절을 지키며 몸을 단장함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신앙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순간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참조, 욥 29:14; 사 52:1; 61:10; 속 3:4; 눅 15:22).

연구자료

휴거(擡舉)

‘휴거’(rapture)란 말은 문자 그대로 ‘들림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미 죽은 성도들과 살아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홀연히 지상에서 공중으로 들리워 옮김을 받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16, 17절). 이 같은 휴거의 모형(模型)으로 우리는 구약 시대 에녹의 승천(창5:24)과 엘리야의 승천(왕하2:11)을 들 수 있으며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일곱 집사 중의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경험(행8:39, 40), 사도 바울의 경험(고후12:1-4)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은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휴거의 모형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변화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요20:19, 26)과 40일 후에 승천하신 일(눅24:50, 51; 행1:9-11)은 종말에 있을 죽은 성도들의 부활(16절)과 살아 남아 있는 성도들의 변화(고전15:51-53) 및 휴거(17절)를 미리 보여 준 대표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휴거에 관하여서도 신학자들 사이에는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7년 대환난과 관련하여 휴거가 일어날 시기에 관하여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대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를 가리켜 ‘환난 시대 이전 휴거주의’(Pre-tribulation view)라고 한다. 그리고 환난 이후에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를 가리켜 ‘환난 시대 이후 휴거주의’(Post-tribulation view)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7년 대환난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 그 중간 시대에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 견해를 가리켜 ‘환난 시대 중 휴거주의’(Mid-tribulation view)라고 한다. 이처럼 휴거에 관한 이견들이 공존하고 있는 까닭은 휴거를 그리스도의 재림 및 7년 대환난과 연관지어 시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귀절이 없기 때문이다. 아뭏든 휴거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17절)을 가리킨다. 이 같은 영접이 바로 ‘어린양의 혼인 잔치’(계19:9)이다.

제 5 장 재림에 관한 바울의 교훈

단락구분 1. 3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 4. 5 빛의 아들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 6. 8 깨어 근신하라 / 9. 11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 12. 13 사역자를 존경하고 피차 화목하라 / 14. 22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생활 / 23. 24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 25. 28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3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롭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너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자

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10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좇으라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 성령을 소멸치 말며

20 예언을 멸시치 말고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26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27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 ㉠ 바울이 본장에서 테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친 교훈은 무엇인가?

㉠ (1) 앞장에서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무질서한 삶을 사는 테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른 재림관을 가르친 바울은 본장에서 재림의 시기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의무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

(2) 즉 불신자들에게는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성도들은 항상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도들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근신하고 피차에 권

면하라고 당부하였다.

(4)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도록 부탁하였다.

(5) 오늘날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관한 소문이 어느 시대보다 만연한 이때에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깨어 있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5, 6절; 마 25:13; 막 13:33; 눅 12:37; 계 3:11; 16:15).

2. **㉠ 사도 바울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1)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여기서 '주의 날'이란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신자에게는 멸망의 날이요(사 2:12; 렘 30:7; 겔 13:5; 욥 1:15; 암 5:18), 신자에게는 부활과 승리의 날(4:14-17), 즉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날을 가리킨다.

(3) 그런데 바울은 이날이 갑자기 도래할 것이라고만 하였지 그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4) 또한 예수께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다(마 24:36; 행 1:7).

(5) 그러나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일부 이단 종파에서는 하나님만 아시는 재림의 시기를 알고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6) 그러므로 거짓 종교들이 범람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마 24:27; 눅 12:40; 계 3:3; 16:15).

3. **㉠ 주의 날을 밤의 도적에 비유한 바울은 두번째로 어떤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가? (3절)**

㉠ (1) 바울은 주의 날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2) 즉 잉태한 여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의 날은 홀연히 임한다는 것이다.

(3) 여기서 바울이 주의 날을 고통에 비유한 것은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이 당할 심판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4)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심판의 날이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육신의 쾌락과 일락에 사로잡혀 주의 날을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된다.

(5) 이러한 사실은 노아의 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불 심판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창 6, 19장).

4. **㉠ 불신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3절)**

㉠ (1) 그들은 결단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2) 한편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다(사 13:6-16; 렘 4:31; 6:24; 13:21; 22:23; 49:24; 50:43; 호 13:13; 미 4:9, 10; 계 6:12-17).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들을 모두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당신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참조, 민 14:18; 사 48:9; 겔 20:7; 롬 9:22; 벰전 3:20; 벰후 3:9).

5. **㉠ 왜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가? (4, 5절)**

㉠ (1) 왜냐하면 그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여기서 성도들을 빛과 낮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도들이 빛이신 하나님과 그리스

도의 자녀인 것을 말해 준다(참조, 요 1:9; 요일 1:5).

- (3) 이 같은 성도들은 날마다 주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날을 맞이할 만반의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 (4) 그러나 원래 어두움의 자녀였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참조, 엡 5:8).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과거의 어두운 행실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다운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엡 5:9-14).

6. **㉠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6절)**

- ㉠** (1) 빛의 아들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謹愼)해야 한다.
- (2) 여기서 '자다' (to sleep)란 말은 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많이 사용된 말로서(마 24:42; 25:13; 26:41; 막 13:35; 엡 5:14)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 (3) 즉 불신자들은 신앙에 대해서 무감각하여 주의 강림을 준비하지 못한 채 비신앙적이고 부도덕한 삶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무감각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
- (4)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빛의 아들들은 마지막 날에 임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깨어 있다.
- (5)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때때로 세상 일에 탐닉하여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영적으로 수면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다.
- (6)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져서 주의 날이 가까와질수록 더욱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사 26:19; 51:17; 52:1; 롬 13:11; 고전 15:34; 엡 5:14).

7. **㉠ 바울은 낮에 속한 자들의 생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8절)**

- ㉠** (1) 그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胸背)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하였다.
- (2) 여기서 바울은 오늘날의 방탄 조끼와 철모에 해당하는 흉배(breast plate)와 투구를 언급함으로써 전투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3) 즉 바울이 낮에 속한 자들의 근신하는 모습을 경계 태세에 입한 보초병의 복장과 비교한 것은 성도들이 근신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대비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였다.
- (4) 이처럼 사단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벧전 5:8).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함으로써 항상 사단의 기습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엡 4:26, 27; 6:11; 약 4:7; 벧전 5:9).

8. **㉠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9절)**

- ㉠** (1)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현대인의 성경).
- (2) 여기서 '세우다' (to choose)는 말은 '선택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진노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새 번역)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 (3)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삼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또 그분을 부활시켰다.
- (4)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끝까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 (6) 그래서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 하였다(롬 8:38, 39).

9. **㉠**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가? (10절)

- ㉠** (1)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2)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께서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영원히 당신과 함께 거하게 하셨다.
 (3) 여기서 '깨든지 자든지'라는 말은 4:14에 언급된 표현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말이다.
 (4) 이처럼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하여 죽었으며 또 그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5) 이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6)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방법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요 10:9; 행 4:12; 15:11; 롬 5:9; 히 5:9; 9:28).

10. **㉠**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11절)

- ㉠** (1) 그것은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는 일이다.
 (2) 여기서 '덕을 세우다'는 말의 원어인 <오이코도메이테>는 원래 '짐을 세우다'는 뜻으로 공관 복음에서는 주로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3)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덕을 세우다'는 뜻으로 사용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당부하고 있다.
 (4)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하루를 무사 안일주의에 사로잡혀 게으르게 살아가는 부도덕한 삶을 살지 말고 항상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라고 가르쳤다.
 (5) 이것은 신앙의 성화(聖化)를 나타내는 말로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서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될 때까지는 항상 보다 나은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리켜 준다.
 (6) 우리는 야곱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가장 잘 볼 수 있다(참조, 창 27-49장).

11. **㉠**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교훈을 마친 바울은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12, 13절)

- ㉠** (1)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였다.
 (2) 여기에는 목회자의 세 가지 사명과 성도의 세 가지 의무가 나타나 있다.
 (3) 먼저 목회자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은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일이다.
 (4) 여기서 '수고하다'는 말은 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고, '다스리다'는 말은 교인들을 치리(治理)한다는 뜻이며(딤후 3:4, 5, 12), '권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훈계한다는 의미이다.
 (5) 즉 목회자들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 생활이 부도덕하며 비신앙적일 때 그들을 훈계하고 또 그들이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치리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고 성도들을 순결히 양육해야 한다.
 (6) 둘째로, 성도들은 '알고'(to know), '귀히 여기며'(to esteem them very highly), '화목해야'(be at peace) 한다.

- (7) 이것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말고 존경하며 또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 (8) 나아가서 성도들은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표하지 말고 성도들 피차간에도 화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 (9)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존경받기만 급급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사랑받기만 좋아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 (10) 그러므로 성도든 목회자든 간에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자각하여 교회를 평화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참조, 고전 14:33; 고후 13:11; 엡 4:3; 빌 4:2; 딤후 2:22).

12. **㉠**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신앙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였는가? (14절)

- ㉠** (1)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규모(規模) 없는 자들을 권계(勸戒)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安慰)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해 참으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규모 없는 자'란 게으른 자를 말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성격이 소심한 자를 가리키며, '힘이 없는 자'란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 (3)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못된 재립관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게으른 자(4장 ㉠1)를 권고하고 징계하며 또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 상심하여 소심해진 사람을 안위하고 격려하며 믿음이 연약하여 잘 넘어지는 자를 도와 주라고 하였다.
- (4)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말이다(마 25:35, 36; 행 20:35; 롬 14:1; 15:1; 고전 8:11; 9:22).
- (5)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하여 실족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상처를 줌으로써 형제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 (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약한 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며 또한 생명이라도 실족케 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참조, 마 18:10, 14; 요 6:39; 10:28; 17:12).

13. **㉠**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인간 관계를 갖도록 요구하였는가? (15절)

- ㉠** (1)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개인을 대하든지 웃사람을 대하든지 언제나 선을 추구하라고 하였다(새 번역).
- (2) 이것은 성도들이 신자를 대하든지 불신자를 상대하든지 간에 아무에게라도 복수의 태도를 취하지 말고 항상 사랑의 정신으로 선행을 베풀라는 뜻이다.
- (3) 한편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 이'(출 21:24; 레 24:20; 신 19:21)로 대하라고 가르침으로써 복수심을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 (4) 그러나 이 법은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뜻이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 (5) 그래서 예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며(마 5:44; 눅 6:27, 28)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다(롬 12:17, 21).

14. **㉠**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6-18절)

- ㉠** (1)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 (2) 여기서 '항상 기뻐하다'라는 말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뻐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기쁨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다(참조, 롬 14:17; 빌 4:4).
- (3)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꾸준히 열심을 다해 기도하라는 말이다(참조, 1:3).

- (4)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환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감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 (5) 그런데 위의 세 가지 금언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으로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가르침에 귀기울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15. ㉠ '성령을 소멸(消滅)치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9절)

- ㉠ (1) 이 말은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뜻이다(현대인의 성경).
- (2) 즉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무절제하게 받아들여 광신적인 태도가 만연했음에 비해(참조, 고전 12-14장)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오히려 성령의 활동을 배격하거나 제한하였다.
- (3)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는 지나치게 성령의 은사만을 중요시하여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기존 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령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자들은 너무 이성적 판단에만 의존하여 성령의 은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 (4) 그러나 이 양자의 극단적인 태도는 둘 다 성령의 사역을 훼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5)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을 방해하는 자들의 결국은 심판과 형벌밖에 없다(사 63:10; 마 12:31; 막 3:29; 행 5:3; 7:51; 엡 4:30).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경건한 신앙 생활을 통해 겸손한 자세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욥 2:28; 마 3:11; 눅 11:3; 24:29; 요 7:39; 14:16; 16:7; 행 2:38).

16. ㉠ '예언을 멸시(蔑視)치 말고'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0절)

- ㉠ (1) 이 말은 예언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과 또 예언을 남용하는 두 가지 태도를 가리킨다.
- (2) 여기서 예언이란 문자 그대로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 (3)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 이 예언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무시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받아들임으로써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다.
- (4)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장래 일을 예언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까지 벌어지고 있다.
- (5) 그러나 예언은 사사라이 풀 것이 아니라 오직 영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의 도움을 받아 해석하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며 또 자신을 위해 예언의 말씀을 마음대로 배격하거나 왜곡함으로써 예언을 멸시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출 4:12; 사 49:4; 51:16; 렘 5:14; 행 1:16; 28:25; 고전 2:13; 딤후 3:16; 벧후 1:21; 계 1:1).

17. ㉠ 성령과 예언에 관해 가르쳤던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21절)

- ㉠ (1)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범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성령과 예언에 관한 것을 지칭하는 것 같다.
- (3) 즉 바울은 성령의 은사나 예언이라고 해서 아무것이나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것을 잘 식별하여 올바른 것을 택하라고 하였다.

- (4) 이것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들 가운데에는 성령의 은사를 가장한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 (5) 한편 성도들 가운데는 은사라고 하면 무턱대고 좋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위험 천만한 일이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靈)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전 12:10; 14:29; 요일 4:1).
- (7)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일반적으로 은사를 받은 자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받은 사의 선·악 정도를 식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8. **㉠ 사도 바울의 악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22절)**

- ㉠** (1)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고 하였다.
- (2) 이 말은 ‘악을 멀리하라’는 말을 보다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다.
- (3) 이처럼 성령의 은사와 예언에 관해 언급한 바울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이유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결과 외적으로 악하게 나타나는 것은 흉내조차도 내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4)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처하는 자들 중에는 그 행실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은 자들보다 못한 자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 (5)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보다는 악한 영의 능력을 받은 자나 다를 바 없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하며 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행실을 멀리해야 한다(요일 28:28; 시 34:14; 97:10; 잠 4:27; 14:16; 숙 7:10; 롬 12:9; 고전 10:6; 벰전 3:11).

19. **㉠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드렸는가? (23절)**

- ㉠** (1) 바울은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흠잡힐 것이 없도록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 달라고 간구하였다(새 번역).
- (2)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설 때까지 성결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이다.
- (3) 여기서 성결한 삶이란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성화(聖化)의 단계를 향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킨다.
- (4) 왜냐하면 성결한 삶은 우리 성도의 전인격적인 삶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 달라고 당부하였던 것이다.
- (6) 그러므로 성도들도 주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깨끗한 자로 서기 위해서 자신의 전삶을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또 올바른 행실로써 자신을 지켜 나가야 한다(3:13; 빌 2:15; 3:6; 골 1:22; 딤후전 3:2; 딤후 1:6; 벰후 3:14).

20. **㉠ 바울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구분하였는가? (23절)**

- ㉠** (1) 그는 인간의 본성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하였다.
- (2) 여기서 몸은 순수하게 물질적인 부분, 즉 육신을 가리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영과 혼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 (3) 그래서 그리스이스 계통의 교부들(Irenaeus, Chrysostom)은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 즉 양심이나 의지와 관련되어 있음에 반해 혼은 동물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생명이나 감정, 감각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였다.

- (4) 반면에 성경에는 인간의 본성을 거의 대부분 혼과 몸(창2:7;마6:25), 영과 몸(전12:7;고전5:35)으로 구분하여 이분법적인 분류법을 사용함으로 혼과 영을 혼용하고 있다.
- (5) 한편 바울은 본질에서 인간의 본성을 혼과 몸과 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당시 그리이스의 사고 방식에 젖어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삼분법적인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상은 성도들의 전인격을 가리켰다.
- (6)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인격을 흠 없이 보존하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 몸과 혼과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사실 성도들은 세상 끝 날까지 흠과 티가 없이 순전하게 보존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참조, 계21:2, 9).

21. ㉠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신 분의 성품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4절)

- ㉠ (1)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 (4) 한편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언급한 이유는 앞절에서 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결한 삶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 (6) 우리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400년 만에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끝까지 보살피 주심으로써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신 구약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엿볼 수 있다(창15:12-16;출2:24, 25;12:40, 41).

22. ㉠ 바울은 본서신을 끝맺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어떤 부탁을 하였는가? (25절)

- ㉠ (1)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 일행(디모테, 실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 (2) 한편 바울은 다른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종종 기도를 요청하였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에게는 불순종하는 유대인을 위하여(롬5:31), 에베소 교인에게는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엡6:19) 그리고 골로새 교인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 달라는(골4:3) 기도를 부탁하였다.
- (3)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번째 편지에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또 그들 일행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받게 해 달라는 기도(살후3:1, 2)를 요청하였다.
- (4) 이처럼 바울은 모든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순조롭게 증거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당부하였다.
- (5)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비록 본서신에는 바울이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은 본서신을 쓸 때 역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 달라는 기도를 요청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 (6)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혼신(渾身)의 힘을 기울이는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23. ㉠ 바울이 본서신의 끝부분에서 두번째로 당부한 것은 무엇인가? (26절)

- ㉠ (1) 그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입맞춤한다'는 것은 고대 동방이나 유대 사회에서 유행하던 인사법으로 주로 신분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졌다.

- (3) 그 후 이 인사법은 그리스도인 사회로 흘러들어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
- (4)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하였다.
- (5) 한편 이러한 인사법은 2,3세기경까지 교회에서 통용되었으나 폐단이 많아 폐지되고 지금은 인사말 또는 악수 등으로써 성도 사이에 교제를 나누고 있다.

24. ㉠ 바울이 본서신의 끝맺는 말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 (27절)

- ㉠ (1) 그는 모든 형제에게 본서신을 읽어 들리라고 하였다.
- (2) 뿐만 아니라 그는 주의 이름을 빌어 강력한 어투로 이 부탁을 하였다.
- (3)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강력한 표현을 써서 본서신을 두루 돌려 보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다.
- (4)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본서신이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형성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 (5) 한편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과 나누어 보도록 당부한 적이 있다(골 4:16).
- (6) 이처럼 진리와 바른 교훈은 단순히 자기 혼자만의 전유물로서 남겨져서는 안 되고 주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어 끝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 가야 한다.

